

## 분쟁광물 미사용 정책

(주)삼성디스플레이 (이하 “삼성디스플레이” 혹은 “당사”)는 인류의 미래와 환경 지속성을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및 아프리카 분쟁 국가 등지에서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이슈를 개선하고자 당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과 협력사의 동참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제품에 사용된 광물이 OECD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sup>1</sup>과 같은 국제 표준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부품 조달을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협력사에게도 당사가 채택 및 시행하고 있는 국제 표준 및 지침에 부합하는 (주)삼성전자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삼성전자의 공급자 행동강령은 본 정책에 일부로서 포함되며, 해당 행동강령 내에서 (주)삼성전자 라고 명시된 부분은 삼성디스플레이로 대체 됩니다.

### □ 분쟁광물

당사는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을 포함한 10 개국 분쟁국가 (이하 “대상 국가”)에서 채굴되는 탄탈륨, 주석, 금, 텅스텐 등을 포함한 특정 광물 (이하 “분쟁광물”)의 판매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대상국가의 인권침해에 지원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미사용 체제 구축을 위해, 당사는 OECD 실사 지침에 부합하는 분쟁광물 공급망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RMI)의 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인증을 취득한 제련소 및 정제소에서 공급한 대상 국가의 광물을 제외하고는,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sup>1</sup>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OECD Due Diligence Guidance”).

이에 당사는 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소비자들에게 적법하고 윤리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제공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협력사 관리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RMAP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 및 정제소와 거래하도록 당사의 협력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당사의 공급망 내에서 확인된 RMAP 미인증 제련소 및 정제소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협력사 대상으로 분쟁광물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며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제출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 □ 책임광물

당사는 대상 국가의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 건강을 보호하는 등, 책임 있는 광물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광물 공급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는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공 이슈에 대해서는 공급망의 해당 광물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코발트를 비롯한 분쟁광물 미사용에 대한 산업 전반의 관리 표준 수립을 통해 책임 있는 광물 공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수년간 당사의 공급망을 개선하였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지역 사회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